<경쟁'94 : 화학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주먹구구식 산업정책의 오류

최근들어 국내외 석유화학시장이 호황기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의 투자 열기가 다시 되살아나고 있다.
국내 석유화학산업이 80년대 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결과 91년부터 심각한 불황이 시작, 그동안 위축될대로 위축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대목이다.
과거 2~3년동안의 악조건이 계속되었다면,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은 현재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도 될 만큼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을 것이다.
세계경기가 되살아나고 중국 및 동남아의 석유화학제품 수요가 급증해 경영난을 타개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일 것이다.
현재와 같은 가격상승이 계속되고 96년까지 호황국면이 이어진다고 예상하면, 3년여동안의 적자를 만회하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에서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닌 것이다.
더군다나 북 · 미간의 핵협상이 순조롭게 타결되고 남북간의 통일을 향한 기운이 무르익는다면 남북통일에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15억 중국시장에서 일정부분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호황의 호기를 그냥 넘겨버릴 수는 없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국내 석유화학 및 화학산업계는 현재의 호기를 어떻게 활용하고 장기화시킬 것인가에 대해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다.
즉 최근의 가격상승이 우리의 노력의 결과이고 아주 장기화되기라도 하는양 만심해서는 아니되며, 이기주의적이고 기회주의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서투른 행동을 해서도 아니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덧붙혀 화학산업정책을 입안하고 계획하며 집행하는 상공자원부도 신중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화학산업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주먹구구식 그리고 부처이기주의와 관료주의, 사적 이익에 연유하는 정책을 집행해서는 아니된다는 것이다.
과거 2~3년동안 화학산업이 극도의 불황에 시달렸던 것도 알고 보면 상공부 관료들의 이기주의적 정책입안과 최고 권력층의 반국가적 사적이기주의에 기반한 정책집행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물론 기존 석유화학기업들의 구태의연한 경영과 뒤떨어진 마케팅방법 그리고 무사안일한 자세, 삼성 · 현대로 대변되는 재벌들의 극단적이고 무분별한 투자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겠지만 간접적으로는 정부의 잘못도 상당한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또다른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내재해 있는 화학산업 정책이 입안 · 집행되고 있는 것같아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상공부는 최근 삼성종합화학이 요청한 SM 증설과 관련해 석유화학 투자지침을 일부 변경, 예외적 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여기에 부합되는 신증설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키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들리고 있다.
이 예외적 신증설 허용기준을 보면 △주수출시장인 아시아지역의 수급전망상 앞으로 상당량의 역외 수입이 필요하고, △미국 등 역외 수출국에 비해 수출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며, △기존 내수시장에 악영향이 없도록 정부의 별도 조치시까지 전량 수출이행이 보장될 것 등 3가지이다.
상공부는 이 허용기준에 맞게 신증설을 허용하면 아무 문제도 없을 것으로 결론을 내린 모양이나, 이런 애매모호하고 조삼모사가 가능한 기준으로 산업계를 설득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것은 80년대 말의 정책이 잘 말해주고 있다.
3년여동안 석유화학산업계의 적자규모가 2조원은 족히 넘는데서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외국과의 합작이라는 모양새를 맞춰주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는 있으나, 이 기준은 전혀 현실에 부합되지 않을 뿐더러 차후에 가서는 불유쾌한 일이 벌어질 수 있음도 알아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석유화학기업들이 겉으로는 수긍하는 척 할런지 모르겠으나, 실상은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 행태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소리가 높다.

산업계나 전문연구원이 동의하지 않는 독단적인 정책은 항상 후유증을 앓게 돼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는 점 강조하고 싶다.

경제산업정책은 명쾌하고 분명하지 않으면 말썽의 불씨를 안는다는 점 정확히 인식해야 할 시점이다.

<화학저널 1994/10/24>